마샬經濟學의 政策的 側面에 관한 硏究
—英國의 産業上의 主導權을 中心으로

邊 衡 尹

빈곤문제의 해결과 경제사회의 유기적 성장이 마샬經濟學體系의 지주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영국의 '商業上의 主導權' 문제도 마샬이 일관되게 관심을 기울여 온 마샬경제학체계의 또 하나의 지주임을 그의 주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샬은 영국이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잉글랜드인의 정력, 지리적 위치와 기후, 석탄·광물자원, 잉글랜드인의 국민성, 자본축적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그는 영국의 主導權의 장래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영국이 하나의 主導國으로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對策 혹은 주도권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對應策으로서 自由貿易政策의 견지, 앵글로·색슨聯邦 내지 영국연방의 구상, 國民의 각성·분발을 제시한다.

1. 序 言

일반적으로 마샬經濟學體系의 지주로서는 貧困問題의 解決과 경제사회의 有機的 成長이라는 생각의 두 가지가 들어진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상의 主導權(略해서 主導權으로 한다) 내지 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지위문제도 마샬경제학체계의 또 하나의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03년의 "國際貿易의 財政政策에 관한 覺書"(1)("Memorandom on Fiscal Policy of International Trade")(略해서 "覺書"로 한다), 1904년 3월 19일자의 A.W. 플럭스 앞으로 보낸 서한, 1907년의 제 1 주저이고 주저중의 주저인 『經濟學原理』(*Principles of Economics*) 제 5 판, 제 2 주저인 1919년의 『産業과 貿易』(*Industry and Trade*), 제 3 주저인 1923년의 『貨幣, 信用 및 商業』(*Money, Credit and Commerce*)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覺書"는 2부 15항 8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샬은 12번째 항 L과 13번째 항 M에서 주도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04년의 플러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그는 『經濟學原理』 후속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 이것은 1903년 8월에 쓰여졌지만, 수정하여 1908년 11월에 발간되었다. 이 "覺書"는 Keynes (1926, pp. 367~420)에 수록되어 있다.

전반은 아직 반박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산업상의 主導權의 原因과 性質에 관한 것이며 분석적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다루어진다. 후반은 국제무역에 관한 것이다〔Pigou (1925, pp. 407～408)〕.

1907년의 『經濟學原理』 제 5 판에 이르러 그는 비로소 서문에서 후속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현재 그 1부가 이미 인쇄에 붙여져 있는 일국의 산업과 무역에 관한 거의 독립된 한 권을 가능한 한 빨리 출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약 반은 일국의 산업상의 主導權의 현시점의 제형태라든가 제조건의 진전을 거대기업이라든가 기업결합의 성격이라든가 기능에 있어서의 최근의 재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면서 다룬다. 후반은 전반의 결론을 현대의 국제무역의 제문제에 적용한다〔Marshall (1907, p. iv)〕.

『産業과 貿易』에서는 그는 서론적 고찰로 되어 있는 제 1 장 앞 부분에서 주도권을 언급하고 있고 제 3 장에서 제 5 장까지에서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Marshall (1919, pp. 32～106)〕.

『貨幣, 信用 및 商業』에서도 주도권에 대한 언급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Marshall (1920, p. 217)〕.

이에서 主導權의 문제는 1903년의 關稅論爭을 계기로 해서 강화되어 그 이후 계속해서 마샬의 관심을 끌어온 重要問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覺書"와 『産業과 貿易』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의를 갖는 영국의 주도권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다음의 第 2 節에서는 주도권의 확립이 그리고 第 3 節에서는 主導權의 약화 내지 쇠퇴와 그것에 대한 對策, 즉 주도권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책이 각각 다루어진다.

2. 英國(2)의 主導權의 確立

마샬은 주도권(leadership) 혹은 우위성(advantage)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도권을 판정하는 基準은 유사한 경제문제를 갖는 다른 나라들이 얼마 뒤에는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아직 행할 용의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현재에 있어서 행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主導權의 性格과 범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는 그

(2) Britain을 말한다. 마샬은 Britain을 England와 Scotland, Ireland로 구성되는 연합왕국(United Kingdom)의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다〔Marshall (1919, p. 53)〕. 이하에서는 England, English는 잉글랜드, 잉글랜드인으로 그리고 Britain, British는 영국, 영국인으로 각각 부르기로 한다.

나라가 수출하는 財貨와 그 나라가 수입하는 재화의 性格에서 찾아질 수 있다. 한 나라의 외국무역의 어떤 부분은 그 나라의 생존에 불가결하지만 다른 훨씬 큰 부분은 그 나라의 주도권에 공헌한다〔Marshall(1919, p. 3)〕.

영국은 18세기에 主導權을 확립한 후 오랫동안 강력한 도전을 받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왔는데 그는 이 주도권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강한 위기의식을 보인 "覺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잉글랜드는 저렴한 자본, 저렴한 석탄, 기후에 기인해서 아직도 다른 선진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우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된 다른 우위성은 접근하기 어려운 운동의 自由(unapproached freedom of movement) 속에서 자라온 生育力(viability)에 있다〔Keynes(1926, p. 419)〕.

그가 주도권 문제를 상세하게 다룬 것은 『産業과 貿易』의 제 3 장에서 제 5 장까지[(3)]에서이다. 제 3 장에서 그는 잉글랜드로 하여금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서 잉글랜드인의 정력, 체력,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기후, 석탄·광물자원, 잉글랜드인의 성격 내지 國民性, 資本蓄積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이들중 國民性 즉 견고한 의지, 자결주의, 철저함, 성실함, 자유에 대한 사랑, 용기와 인내심 등은 정력, 체력과 함께 그 기원을 먼 과거의 시대에 갖고 있으며 대략 6세기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Marshall(1919, p. 35)〕.

그는 제 4 장에서는 영국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한 要因으로서 우선 石炭과 鐵, 잉글랜드인의 才能·발명의 특성, 重工業의 존재, 大量生産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석탄과 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石炭과 鐵은 잉글랜드의 주도권의 원초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主導權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독특한(unique) 것으로 만든 原因의 모두는 어느 정도 양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석탄과 철이 없었더라면 잉글랜드는 고작 홀랜드와 같은 정도거나 약간 규모가 큰 우위에 도달할 수 있는 데 그쳤을 것이다. 잉글랜드는 石炭과 鐵의 도움으로 강력한 선구자가 되었으며 오늘날 세계를 바꾸고 있는 機械工業의 주요한 구상이 기본적으로는 잉글랜드의 것이라는 사태가 발생했다〔Marshall(1919, p. 60)〕.

그는 잉글랜드인의 재능·발명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잉글랜드인의 천재의 특징은 이미 水力을 이용한 일(馬力에 의해서 자주 보조되었지만)

(3)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의 제목은 각각 Foundations of England's industrial leadership under strong challenge이다.

의 다양성 속에 나타나 있었다〔Marshall(1919, p. 61)〕.

잉글랜드인의 발명의 주특징은 그 교묘함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잉글랜드인의 천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순화를 추구하는 發明家들의 확고한 결의에 나타나 있다. 잉글랜드의 발명가는 각각의 발명에 대해서 실용모형(working models)을 차례로 만들고 그것을 改良하고 단순화하여 수작업과의 경쟁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Marshall(1919, pp. 61~62)〕.

그는 鐵工業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최대의 강점은 보다 重工業的인 産業에 있었다〔Marshall(1919, p. 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인의 성격의 힘을 가장 남김없이 나타낸 것은 철공업이었지 직물공업은 아니었다〔Marshall(1919, p. 61)〕.

그는 大量生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量生産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잉글랜드를 강력하게 하고 프랑스와의 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잉글랜드보다도 천연자원이 풍부한 諸國에 대해서 軍事的인 원조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그것은 우수한 産業上의 發明의 獨占을 오랫동안에 걸쳐서 잉글랜드에 초래시켰다. 잉글랜드가 전진하고 세계가 그것을 따랐다〔Marshall(1919. p. 62)〕.(4)

그는 앞에서 든 것들 외에 영국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서 프랑스와의 大戰爭, 鐵道의 발달, 自由貿易政策을 들고 있기도 하다.

그는 프랑스와의 대전쟁, 철도의 발달, 자유무역정책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大戰爭은 영국의 경제적 진보를 지연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의 다른 諸國을 후퇴시켰고 따라서 영국의 主導權을 强化시켰다.(5)

18세기의 제2·4반기에 있어서의 鐵道의 발달은 잉글랜드의 産業의 結合을 도왔고 또 무역의 확대를 도왔다.(6)

사람들이 원하는 무역은 어떤 것이든 또 사람들이 원하는 제조업은 어떤 것이든 선택

(4) 그는 석탄과 철, 잉글랜드인의 재능·발명의 특성, 중공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영국의 발명이 목표로 한 大量的인 成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방법과 기계의 單純化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복잡한 과정을 끈기있게 해결해가지 않고서는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의 거의 모두는 새로운 기계의 제조와 운전에, 석탄과 철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제 4 장 제 2 절의 제목이기도 하다〔Marshall(1919, p. 60)〕.
(5) 이것은 제 4 장 제 3 절의 제목이기도 하다〔Marshall(1919, p. 64)〕.
(6) 이것은 제 4 장 제 4 절의 제목이기도 하다〔Marshall(1919, p. 68)〕.

할 수 있는 自由(본래의 의미에서의 'laissez-faire')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나 財貨를 송부하고 또 어느 곳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自由(laissez-aller)와 결합하여 잉글랜드를 세계의 貨物의 集產地로 만들었다. 이들 자유는 잉글랜드에 미증유의 貿易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잉글랜드 자체의 새로운 착상의 모두를 그것이 다른 국민의 것으로 되기 이전에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또 외국의 착상에서 잉글랜드의 이용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을 배우는 데 대해서 미증유의 利益을 부여했다〔Marshall (1919, p. 84)〕.

제 5 장은 제목이 말하듯이〔Marshall(1919, p. 35)〕 원래가 영국이 주도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기술한 바를 요약하고 있다.

1750년 이후 영국의 主導權이 세계사상 전례가 없는 諸要因의 조합(combination)에 의해서 발전한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다〔Marshall(1919, p. 86)〕.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의 산업과 무역의 주도권이 자국에게 주어진 페티(Petty)의 소위 '天賦의 產物'의 활용에 정력을 경주한 諸都市 혹은 諸國에 의해서 차지해졌고 또 국내시장에서의 승리가 외국시장에서의 승리의 길을 준비했음을 보았다. 우리는 또 영국의 主導權이 그것에 선행한 어떤 나라보다도 규모에 있어서 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의 일부는 영국이 主導權에 있어서 영국을 선행한 어떤 나라가 갖고 있던 것보다도 큰 자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 그 일부는 영국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貿易의 영역이 신대륙의 개발과 교통수단의 개량에 의해서 확대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유의 주된 것은 영국 국민이 自然의 諸力을 대규모로 그리고 강력한 방법으로 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수요되는 물품을 자국에게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대량으로 生產할 수 있는 것에 있었음을 보았다. 收穫遞減의 法則을 대규모 생산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영국은 스스로가 원하는 곳에 전세계를 봉사시킴으로써 잉글랜드의 職工은 서유럽의 약간의 지방과 부유계급과 비교해도 많은 점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풍부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Marshall(1919, p. 106)〕.(7)

3. 英國의 主導權에 대한 挑戰, 그 對應

마샬은 『產業과 貿易』의 제 5 장에서 영국의 주도권은 완료했다고 말하고 있다.(8) 그러나 사실은 그는 이미 이 책이 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영국의 주도권의 장래에 대해서 강한 危機意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覺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래에 있어서 諸國간에서의 잉글랜드의 地位는 잉글랜드의 산업상의 주도권을 어느

(7) 이것은 제 5 장의 끝부분에 있다.
(8) 이것은 제 5 장 제 5 절의 제목에 있는 말이다〔Marshall(1919, p. 104)〕.

정도 유지하는가에 의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잉글랜드는 유일의 주도국(the leader)일 수는 없지만 하나의 主導國(a leader)일 수는 있을 것이다〔Keynes(1926, p. 404)〕.

따라서 그는 19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영국이 적어도 하나의 주도국으로서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9]

그가 얼마나 主導權을 중시했는가는 다음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산업상의 主導權은 국민적 理想에 있어서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Marshall(1919, p. 3)〕.

그는 영국이 적어도 하나의 주도국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는 對策 혹은 주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自由貿易政策의 견지, 앵글로·색슨연방 내지 英國聯邦의 구상, 국민의 각성·분발을 제시하고 있다.

3.1. 自由貿易政策[10]

그는 "覺書"에서 잉글랜드에게는 비록 미국에게 그렇지 않더라도 自由貿易이 그 주도권 유지에 필요불가결하다〔Keynes(1926, p. 408)〕[11]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잉글랜드가 세계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잉글랜드의 産業人口 특히 製造業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새로운 상품 특히 발명의 천재인 미국과 체계적 사고와 과학적 훈련으로 마련된 독일의 생산품에 대해서 國內市場을 開放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Keynes(1926, pp. 408~409)〕.

잉글랜드는 그 힘(strength)의 주된 源泉인 生育力을 포기해야 한다는 시사는 좋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극히 나쁜 방법(way)인 것이다〔Keynes(1926, p. 420)〕.[12]

3.2. 앵글로·색슨聯邦 내지 英國聯邦의 構想

그는 "覺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9) 코트에 의하면 당시의 영국의 産業上의 主導權 내지 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지위에 대해서 객관한 면에서는 마샬과 보호무역론자인 W.J.애슈레 간에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고 한다〔Court(1954, p. 334)〕.

(10) 마샬은 1875년에 4개월여의 미국여행을 했는데 각 도시의 공장시설과 미국의 보호무역론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自由貿易論에 대해서 確信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자유무역에 대한 그의 의견을 충분하게, 강하게, 또 솔직하게 피력한 것은 "覺書"에서라고 한다〔Tulbery(1990, pp. 128~129) 참조〕.

(11) 이것은 "覺書"의 M항의 제목이다.

(12) 마샬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반대논의는 "覺書"의 pp. 389~392, 394, 409~410, 418~419, 『貨幣, 信用 및 商業』의 pp. 216~21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국통일(Imperial unity)은 높은 이상이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할 용의가 없는 부유한 잉글랜드人은 그의 시대에 거의 적합치 않다. 그리고 모든 계급의 잉글랜드인은 後世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조차 만약 현재의 희생은 그들 자손에 대해서 보다 많은 國益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 理想의 실현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공헌해야 한다〔Keynes(1926, p. 417)〕.

실제에 있어서는 그 계획(scheme)은 제국통일이 善意의 진정한 정신보다도 훨씬 잉글랜드와 그 植民地간에 실망과 마찰을 일으킬 것같이 나에게 생각된다. 그리고 만약 그 계획이 자기희생보다도 도리어 탐욕의 정신에 접근했다면 아마 다른 땅에 원한을 조장시킬 것 같으며 또 제국통일보다도 높은 이상인 것처럼 생각되는 앵글로·색슨연방(federated Angle-Saxondom)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이 가능한 날을 지연시키게 될 것 같다〔Keynes(1926, p. 420)〕.[13]

그는 또 『産業과 貿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국의 産業上의 主導權은 완료하고 영국연방(the British Federation of Nations)의 그것으로 병합되는 과정에 있다〔Marshall(1919, p. 104)〕.[14]

英國聯邦——스머츠장군이 시사한 용어를 차용한다면——은 영국의 최초의 위대한 植民地를 연방에서 추방해 버렸다. 선의이기는 하지만 둔감하고 자유와 진보의 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숙한 실수에 의해서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전세계의 주요한(chief) 지도자의 하나가 되었고 또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에 두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최고의(supreme) 지도자로 되었다. 잉글랜드 자신은 인구 1인당 1에이커의 넓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1인당 30에이커의 국토를 가지며 캐나다 自治領은 300에이커이고 호주는 600에이커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가 自國의 발전에 대한 지도를 그들의 맏형(eldest sister)의 과거의 발전과 현재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며 또 정당하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영국의 産業上의 主導權은 가장 광범하고 가장 완전한 발전을 실현하게 될런지 모른다〔Marshall(1919, p. 105)〕.[15]

3.3. 國民의 覺醒, 奮發

마샬은 『産業과 貿易』의 제 5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 맨 첫머리의 구절이다.

영국이 産業上의 主導權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영국이 경쟁상대를 따라잡을 때에 보인 정력과 적어도 같은 정도로 高度의 그리고 持久的인 정력을 필요로 하게 된 새로운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Marshall(1919, p. 86)〕.

(13) "靑書"는 關稅改革構想에 반대하는 글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계획은 그 구상을 의미한다.
(14) 이것은 제 5 장 제 5 절의 제목의 일부이다.
(15) 마샬은 이 앵글로·색슨연방이나 영국연방의 성격이라든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리하여 엣날부터의 부유한 기업은 정력과 창의력의 원천을 상실한 뒤에도 단순한 타성(momentum)에 의해서 번영할 수 있었다. 穀物法 폐지 이전의 어려운 시대에 어린 시절을 지내고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잔업하고 企業心과 기략에 차있던 사람들의 사업이 인생을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사업의 주된 일이 월급을 받는 보조자의 손에 의해서 先代가 정한 방침대로 운영되는 것에 만족하는 아들에 의해서 상속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物價의 팽창에 도움되는 바가 컸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와 같은 사람들도 충분한 이윤을 올릴 수 있어 자기자신에 만족했다. 이러한 예외적인 好條件의 組合(combination)이 정력의 최대의 적인 지나친 자기만족을 야기시켰던 것이다〔Marshall(1919, pp. 91～92)〕.[16]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국이 主導權을 확립하던 당시의 정력을 상실했고 製造業者가 지나친 자기만족 내지 과신에 빠져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영국의 主導權으로 하여금 강력한 도전을 받게 한 원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영국의 주도권의 弱化 내지 衰退要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은 개인에게와 마찬가지로 국가에게도 타당하다〔Marshall(1919, p. 103)〕고 경고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영국이 경쟁상대를 따라잡을 때 보인 정력과 적어도 같은 정도로 高度의 그리고 持久的인 精力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1885～86년의 '貿易不振에 관한 委員會'의 보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 이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많은 오해를 풀고……또 우리나라의 貿易上의 地位에 대한……한층 희망에 찬 견해를 격려하는 동시에……또 우리의 지위가 구축된 시대와 동일한 정력, 인내, 자제(self-restraint), 기략의 발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같이 생각된다〔Marshall(1919, p. 94)〕.

이처럼 마샬은 영국이 적어도 主導國의 하나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 對應策의 하나가 바로 영국의 주도권이 확립된 시대의 英國人의 國民性과 정력을 되찾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結　言

케인즈는 『마샬傳』(*Alfred Marshall, Essays in Biography*)에서 『産業과 貿易』을 높이

(16) 이것의 일부는 이미 "覺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Keynes(1926, p. 408)〕.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은 1900년경의 유럽에 확립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재형태의 설명이며 이 책의 주요한 가치는 그 中心的 테마보다도 보다 불명확하고 희미한 것 속에 있으며 발굴하여 매장된 보물을 찾아내야 하는 것〔Keynes(1933, p. 228)〕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의 제 1 장과 제 3 장에서 제 5 장까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주도권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일반적으로 마샬經濟學體系의 지주는 貧困問題의 解決과 경제사회의 有機的 成長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리브하프스키는 『産業과 貿易』을 '간과의 기묘한 例'로 보고 있다〔Liebhafsky(1955)〕.

물론 그렇게 된 데에 대한 의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동안 마샬經濟學研究를 거의 『經濟學原理』를 중심으로 해서 행해져온 데 주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경제이론 내지 분석도구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마샬經濟學의 정책적 측면은 뒷전으로 밀려 있어서 쉽게 포착될 수 없는 것이 되고 『經濟學原理』가 단연 전면으로 나서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마샬은 분명히 주도권의 문제를 중시했다. 그는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주도권은 국가의 제이상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大戰 전에는 영국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현재도 부자, 노동자계급 할 것 없이 그 실질소득은 다른 어떤 인구조밀국의 대응하는 계급의 그것보다도 높다. 그것이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방법은 부단히 상승하는 率로 전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약간의 점에서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다.……우리는 영국의 産業上의 主導權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유지하여 그 再確大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産業上의 主導權은 국가의 제이상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arshall(1919, p. 3)〕.(17)

서언에서 말한 것처럼 主導權 問題는 1903년의 관세논쟁을 계기로 해서 강화되어 그 이후 계속해서 마샬의 관심을 끌어 온 중요문제인 것이다.

名譽教授
學峴研究室
151-061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1657-19
전화 : (02)886-7558

(17) 이것은 서론적 고찰로 되어 있는 제 1 장의 앞 부분에 있는 구절이다.

參 考 文 獻

Court, W.H.B. (1954):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Britain from 1750 to Recent Times.*

Keynes, J.M. ed. (1926): *Official Papers by Alfred Marshall.*

_____(1933): *Alfred Marshall, Essays in Biography.*

Liebhafsky, H.H. (1955): "A Curious Case of Neglect: Marshall's Industry and Trad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21. 3.

Marshall, A. (1907): *Principles of Economics.*

_____(1919): *Industry and Trade.*

_____(1923): *Money, Credit and Commerce.*

Pigou, A.C. (1925): *Memorials of Alfred Marshall.*

Tulbery, R.M. ed. (1980): *Alfred Marshall in Retrospect.*